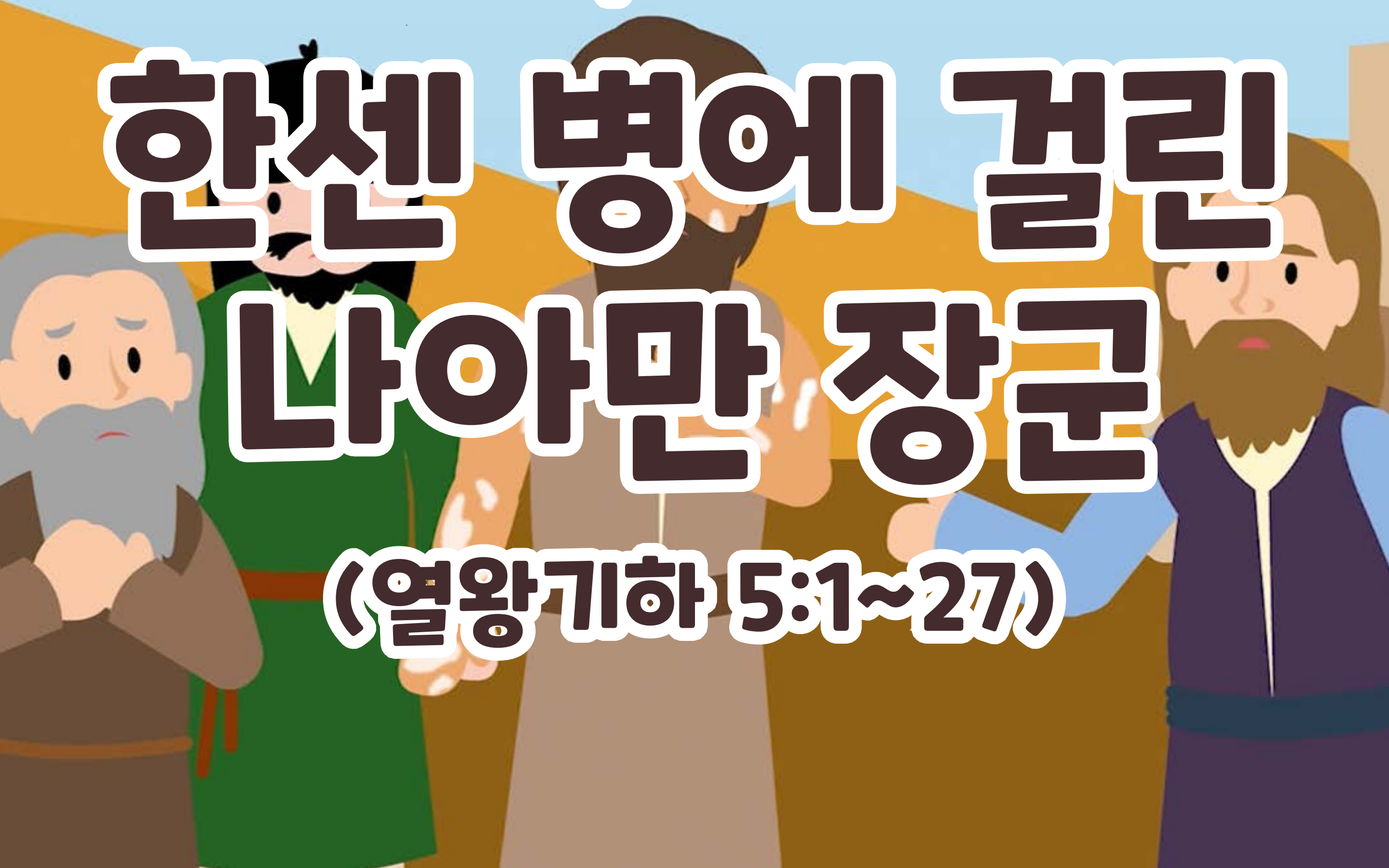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0

한센 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1~27)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는 ‘아람’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대신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죠.

아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곤 했는데
때때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기도 했어요.

아람왕이 가장 아끼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죠.

나아만에게도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비록 노예 신세이긴 했지만
아주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한센 병’이라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센 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에 하얀 점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병이 심해지면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어요.

나아만 부부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린 노예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님이 계셔요!
나아만 주인님께서 그분을 만나보시면
그분이 틀림없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의 부인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녀는 곧장 이 말을 나아만에게 전해주었고
나아만은 고민 끝에 아람 왕을 찾아가 말했죠.

**“폐하. 저희 집의 노예 아이가 말하길
북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다 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에 가는걸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람 왕도 가장 아끼는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
낮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네의 병을 고쳐 달라고 말해두겠네.
어서 떠나시게나.”**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면
어떻게든 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아람 왕은, 많은 양의 금과 은, 아름다운 옷들까지
선물로 챙겨서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주었어요.**

**“왕이시여, 아람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왕궁 밖에 서 있습니다요.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해달라는데요?”**

편지를 읽어 본 북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나보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라니.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걸 보니
이 일을 핑계 삼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왕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죠.
왕이 근심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께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선지자께서는 왕께서 옷을 찢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를 지금 바로 자신에게
보내라 하셨습니다.”

왕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일행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엘리사는 그들을 마중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심부름꾼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죠.

**“나아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고나면
장군의 피부병이 나을 거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천하의 나아만에게 고작 하인 한 명
달랑 보내서는 그 지저분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 하였는가?
강물이라면 우리 아람에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거늘 어찌 저 진흙투성이 요단강에서
이 몸을 씻으라 하는것인가!!”**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려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주인님, 이 지독한 병을 낫게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야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기껏해야 강물에서 몸을 씻는 것인데
정말 그 정도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제야 나아만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하인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옷을 벗고 강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주인님...! 피,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한센병의 흔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오.. 이럴 수가.. 내 병이 나왔다!
내 병이 정말로 나왔어...!”**

티 하나 없이 깨끗해진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나아만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아만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북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제 나라 ‘아람’에, 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일은
평생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돈이나 선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사코 거절했죠.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챙겨서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하인 중에 ‘게하시’는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은 게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으유.. 이럴 때 한 뭉텨 챙겨야지.
내 주인이지만 가끔 보면 속 터진단 말야.
나라도 어떻게든 선물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게하시는 부리나케 나아만 일행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마차를 멈춰 세웠죠.

“무슨 일인가?”

**“예.. 방금 제 주인 엘리사 선지자께서
약간의 선물 정도는 받아두면 쓸데가 있겠구나 하셨습니다.
헤헤...그래서 뭐 은이나 옷 몇 벌 정도는
주실 수 있을까 하여..”**

**“하하! 물론이다! 선지자께 그 정도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구나.”**

그렇게 게하시는 콧노래를 부르며 몰래
선물을 챙겨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 가긴 어딜 갑니까요.
잠깐 뒷간에 좀 있었습시다. 헤헤.”

그러자, 인자했던 엘리사의 목소리가
아주 차갑게 바뀌었어요.

**“네가 나아만을 따라가 선물을 받아온 걸 다 알고 있다!
네 녀석이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너의 죄가 크니,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너에게로
대신 옮겨갈 것이다!”**

**엘리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게하시의 피부에 하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 속에 바진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과 하나님을 속이려던
게하시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게하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